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질로 사랑
민중 복음화
세계 변화
이웃 사랑

주관 총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시편 134)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총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헌교회

THE WEEKLY CHŒNG HY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5월 17일 금요일

5. 하나님의 약속의 확장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소망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삼상 24:20), 사울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하며 변호했다. 그러나 그를 살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기쁨을 누렸었다(시 32:1,5,11).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절정 확장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의 진솔한 고백(시 27:8,10,12; 18:1,2,27,5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다(시 20:1,2,6,9). 그는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는 이유도 자신의 능력이나 작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며(시 21:3,4,5,7), 환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시 45:5,7).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와 고백에는 성도의 바른 길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열매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이었다(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택한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언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은 것, 자신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은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시 72:6,7,12).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알리시고 세우시었다(시 89:19,20,26,28). 그것은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배후신 축복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즉, 전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결국 하나님과 그 모든 언약의 신실함을 믿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시 110:1,5)!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모두 받게 되었다(시 132:10,11,17,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왕인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었다(시 32:1).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점차 멸망으로 치달아 갈 때에도 다윗의 씨는 보존될 것이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창화) 25:27-30).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마 1:1). 유대인이 아닌 '누가' 사도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기록했다(눅 1:27). '누가' 사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곳에서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임을 선언함으로써 예수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다고(롬 1:3, 갈 2:20), '마태' 사도 역시 이스라엘의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음을 기록했다(마 21:9). 그리고 마태에게서도 스스로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밝히셨다(마 22:16).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2002년 제2차 청지기훈련

“수치, 전통, 그리고 전향”

6월 12일(수)에서 14일(금)까지

다음달 6월 중순에는 2002년도 제2차 청지기훈련이 열릴 계획이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청지기훈련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청지기훈련은 '수치'(시 83:16-18), '전통'(사 66:7-9), 그리고 '전향'(신 4:29-30)이라는 책다른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주제들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각성'에 이르게 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가 '전향'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온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선포된 말씀은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과 결단, 그리고 새로운 열정을 뜨겁게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 회사를 떠날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청지기훈련을 위해서 모든 기도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사역 원조♡

1. 팀 선교사역 중 외전부 사역(심방사역)은 팀 사역 비중에서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탐과 개인 노방전도, 방문전도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a. 교구나 부사에서 나오는 선교금과 물품은 사무국에 입금 및 보관한다.
- 이미 각 팀별로 적절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으므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회의 지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 b. 각 팀의 사역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기록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 속식 비율은 선교국의 평균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 예산 사용은 항목과 실제 사용이 동일해야 한다.

3. 개인적인 짐 외에는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 a. 특히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가지고 가는 일은 피해야 한다.
- b. 여행이 아니라 선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대성령 신년 주님처럼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한다).
- c. '너희 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말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다려야 할 109.

4. 선교 현지에 선물이나 먹을 것 등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 a. 접착질을 마련하기 위한 물품 제공을 피해야 한다(성경과 전도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임).
- b. 접착제를 선물이나 물품을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탁한다.
- 선물을 가져갈 경우 단돈과 김도의 표적이 되기 쉽다.
- '오리 상사나 혼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탐람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 떠나가기까지 가가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췌판(가마)을 빌라 하고 김도 빌라하고 신년의 말뚝대로 선물이나 먹을 것보다도 주님의 축복을 전하라(마 10:11-15).
- c. 이러한 취지로 선교원리에서 그 동안 파송 신년 팀들에게 빌려주었던 물품가(범)은색은 5월 15일부로 제공되지 않는다.

5. 단기선교 팀은 부부나 가족이 한 팀에 속해 갈 수 없다.

- a. 부부나 가족이 한 팀에 속해 갈 경우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6. 일체의 선물이나 기념품들은 사오지 않아야 한다.

- a. 선물을 가는 것이므로 쇼핑(shopping)하지 말아야 한다.
- b. 가지고 돌아와야 할 것은 구약받은 영혼들이기 기억하라.

신약 말씀

보통은혜의 열매들

인간이 현세에서 받는 모든 자연적 혜택들은 보통은혜에 기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상속받았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신하심을 풍성하게 받고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온사들을 모든 인간에게 차별없이 선 선인이나 악인,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에게 풍성하게 부여하신다고 말한다.

보통은혜의 역사로 인해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죄가 억제된다. 인류의 삶에 들어온 부패의 요소가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당분간 허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사하는 구절들이 존재한다.

보통은혜로 인해 인간은 진·선·미에 대한 본능력을 보존하고 있으며 종종 놀랄만한 정도로 이들의 진가를 인정하고 진리·도덕 그리고 종교에 대한 욕망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야만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죄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행 17:22).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이를 따 먹었고 사형선고를 어느 정도 수행되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수행된 것은 아니다. 보통은혜로 인해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형선고를 즉시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많은 자연적 혜택과 자연적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것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범죄한 인간은 정녕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뜨거운 피가 섞여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경배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나 광 역(목사, 6교구지도)

No Rain

(Isaiah 5:6)

*"I will lay it waste; It will not be pruned or hoed,
But briar and thorns will come up,
I will also charge the clouds to rain no rain on it"*

The Bible mentions rain in various ways. During the time of Noah, it rained constantly for forty days and nights, flooding the entire earth. Generally speaking, rain is good. But God also uses the rain for judgment. Good rain grows the seed, blossoms the flower, and produces fruit. But when God uses rain for judgment, everything gets washed out. In today's Bible verse, rain is a blessing. God gave blessing rain to His vineyard, but it produced only worthless fruit. When God's people sinned, He withheld His precious water. We all know that in Africa when it rains the land is filled with greenery and vibrant jungle life. When the rain stops, the earth dries up and all the beautiful greens are gone. The earth cracks and the bones of the dead lie scattered. Rain is a grace of God. Today's Bible verse pictures the clouds overhead, but they're commanded to drop no rain.

What does it mean to have clouds but no rain? So many pastors preach but without power. We see the clouds but no rain. Nothing grows where they preach. There is formalized worship, ordained events, but without God's blessing. There are many gathered Christians, but in their midst no Jesus. They read the Bible, there is explanation, but no application. Many pray and many ask for things, but nobody practices. No one repents. No one pleads with God. The Holy Spirit grieves and sorrows around us. Do we have this kind of situation? We see the clouds but there is no rain. Why? Because there is no order from God, "I will also charge the clouds to rain no rain". Outward actions are ready but there are no inward actions. The clouds are there but there's no rain. Outward behaviors look great, but there's no inward crying, confessing, and pleading with God. There's no inward activity.

What do clouds with no rain involve? It involves no confession, no conversion. Without the rain there's no activity of the Holy Spirit. There can be no restoration because plants don't grow without rain. There's no result. There is no revival for the soul. The soul becomes weary and tired because there is no grace of God, no spiritual activity. It's like being lukewarm, "So because you are lukewarm, and neither hot nor cold,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Rev. 3:16). There's no spiritual joy or happiness without rain. No victory. The

yard appears green but without the rain everything starts turning to sorrow and suffering. Nothing can flourish.

How do clouds with no rain manifest? When the individual soul doesn't feel the blessing of God's Word. Christians claim to know the Gospel but they're not interested in it. They are more in tune with their environment and not serious about the Bible. They don't want to hear the strict Word of God. They prefer to hear the stories of the Word of God which compliment their cultural living. Actually, their souls are not interested in salvation. It is a sad, very sad situation to have clouds without rain.

How can we prevent rainless clouds? Through repentance. When we honestly and humbly confess our ill mind. When we wholeheartedly open our hearts to the Lord there we can find the grace of God. God is holding back the rain, but when we repent and ask Him to release it, He is faithful. When we honestly ask the Holy Spirit to come down upon our heart, the rain will come. It's not about praying outwardly like a show off. This is an inward, honest, simple, and direct calling to the Lord. Do you remember Elijah's prayer? He prayed,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 back again" (1 Kings 18:37). The fire of the Lord came to Elijah. Elijah prayed faithfully seven times for the rain, and it came about at the seventh time, "Behold, a cloud as small as a man's hand is coming up from the sea". He told his servant to run and tell Ahab, "Prepare your chariot and go down, so that the heavy shower does not stop you" (1 Kings 18:44). Amen! A lot of Christians see big clouds but no rain. Elijah saw a little, tiny cloud and knew there was going to be a big rain.

Let's look to Jesus only. My dear Choong Hyun brothers and sisters, even though Jesus may appear to you as small, believe in Him. Even though the Gospel may seem a little thing, believe in it. Don't ignore the little clouds. Believe. Please listen. When you hear the pastor's sermon sometimes you think it a small thing, like the palm of your hand, but it is really a big blessing if God uses it. Concentrate. Let's hear His voice, and let the rain of God's grace fall gently upon our souls. 🌿



김성원 목사

비를 내리지 말라

(사 5:6)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멎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은혜의 비

성경에서 비는 다양한 의미로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의 비는 40주야를 계속해서 내렸으며, 온 세상은 물로 범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단비를 주심으로 씨를 자라게 하고 꽃이 피어나게 하며 과실이 맺히게도 하시지만,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에 축복의 비를 내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도원에는 가지 없는 열매만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중한 빔줄기를 허락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비가 내릴 때에는 그 땅이 초목의 수목과 활기찬 정글 생활로 가득하게 전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멈추면 땅은 메마르고 아름다운 초원은 소멸됩니다. 땅은 갈라지고, 죽은 짐승들의 뼈는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 모습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비가 없는 구름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말씀을 전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름은 보이지만 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아무 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형식화된 예배, 정해진 행사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배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는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지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주변에서 탄식하고 슬퍼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구름은 드리워 있지만, 슬프게도 비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내가 또 구름을 멎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외적인 행동은 준비가 되었지만, 내면적인 준비는 없습니다. 이것이 구름은 있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부로 드러나는 일을 중요시하는 자들은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에는 죄에 대한 애증함과 죄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는 신앙

비가 없는 구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려 하며, 성경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의례적으로 자신들의 문화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자 합니다. 진정 그들의 영혼은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구름이 있으나 내릴 비가 없다는 것은 진실로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신앙

전혀 비를 포함하지 않은 구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회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없이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식물들은 비가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심령의 부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성령의 일하심도 없기 때문에 영혼은 연약해지고 피곤하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심령이 미지근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안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제 3:16). 은혜의 비가 영혼에 내리지 않는다면 영적인 기쁨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이 푸르게 보이지만, 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슬픔과 고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유쾌함이 없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비

우리는 비가 없는 구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병든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열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유보하고 계시지만, 회개하고 간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시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하시도록 정직하게 요청할 때, 은혜의 비는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처럼 밖으로 드러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정직하고 단순히 주를 향한 직접적인 요청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하고 주는 지혜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왕상 18:37). 주의 불이 엘리야에게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하여 일곱 번씩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응답받았습니다. “저가 고하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엘리야는 그의 종을 향하여 아람에게 달려가서 비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왕상 18:44).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커다란 구름을 보지만 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그맣고 작은 구름을 보았고, 그것이 커다란 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의 빔줄기로 오신 예수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비록 예수가 여러분에게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분을 믿으십시오. 비록 복음이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으십시오. 작은 구름을 소중히 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부디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회자들의 설교가 때때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실제로 커다란 축복이 됩니다. 집중하여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촉만하게 내리도록 하십시오. ■

LMTC 수련회를 갔다와서

안 경 호 (청년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는 닢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囚獄)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라', 주기철 목사 '옥중명상'

5월 3일 LMTC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 황해도 장연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인 초대 소래교회의 모형을 꾸며놓은 충신대 대학원의 소래교회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교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들의 깊은 믿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화기 교회들의 수많은 사진들과 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수많은 유령·무령의 순교자들의 유물들을 보며, 나는 저절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즐거워 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오히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하지는 않았나?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던 이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교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들의 깊은 믿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화기 교회들의 수많은 사진들과 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수많은 유령·무령의 순교자들의 유물들을 보며, 나는 저절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즐거워 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오히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하지는 않았나?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던 이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에게도 조그만 꿈이 생깁니다. 이제 내게 주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과, 많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목욕적인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주님에 대하여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12세의 유월절에 그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막 2:40)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12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셨으므로, 자신의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겠다는 내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바로 이 사명과 목적을 수행해야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복음서를 읽으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복록 해로 산 기슭의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직접 물으셨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즉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마 16:20; 막 8:30).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드러내 놓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 살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서 두 번 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를 받으실 것에 대해 예언하셨다. 이 세 번의 수난의 예언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경되 당하리라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그가 삼 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사실도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고난 예언에서 강조하신 것은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며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그가 그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의 모든 것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인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때 많은 교훈과 모범과 긍휼과 능력의 일을 행하셨고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중의 어느 것도 그의 사명의 중심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마음에 십자가를 항상 품고 있었고, 그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으므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다음주에 계속 (이성목 목사)



가지고 그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초상화 대신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적힌 거울을 보며 나의 신앙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 눈앞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겠다고, 하나님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여, 주께서 행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니 이제 굴하지 않겠습니다. 순교자들이 남긴 문구들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간헐 차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2차 CMTC/ 장소: 배다나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일반(5/26), 토요일(6/1) 8강 단기선교의 실제 2(민병문 전도사)

주일반(6/2), 토요일(6/8) 9강 선교의 의미와 역사(이종대 목사)

주일반(6/9), 토요일(6/15) 10강 음극처치/제회예배

*2차 CMTC 집중반/ 6월 6일 (09:00-21:30), 제 2교육관 4층

*5/28 연극학교는 휴강입니다.

가 라 하 심

천 명 금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단원)

"나는 남들이 아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 은혜가 참후면 나도 따라서 춤출 뿐..." (W. H. Auden)

삶은...

예수님 없이 그냥 걸어가는 삶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하여도 얼마나 '덜' 소리가 나게 비어버린 것인지요. 하늘이 비어버린 것만 같은 가슴을 안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은 작은 성취, 작은 만족, 작은 행복들을 껴안고 살아가지만, 이내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 내는 것 같은 삶의 질곡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허의 눈길로 저를 그윽히 바라보십니다.

무릎 수술을 한 지 8개월만에 CMTC훈련의 하나인 외국인 선교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단기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아주 작은 주춧돌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이 가라시니 갑니다."

우리 5교구는 매주 토요일 4시에 모여 선교지에서의 전도와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열 사람이 하나되게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길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찌니라" (렘 1:7).

기도제목

1.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어 그 땅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들과 만물 때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3. 우즈베키스탄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4.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통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악한 마귀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5.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들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어 백배, 육십배, 혹은 삼십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최 재 필 (신혼가정부)



하루 일출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빠!" 하며 활박웃음을 지은 딸이 달려옵니다. 두 팔 벌려 안아 딸이 까르르 웃습니다. 약간은 지치고 노곤하던 몸도 어느 새 활기가 돋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아야 진짜 어른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 자신밖에 모르거나 나보다 소중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소중한 아이를 보호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재봉하는 것을 볼 때의 기쁨, 또한 다치거나 울음을 터뜨리고 때를 쓸 때면 드는 안쓰러운 마음도 부모라면 모두 마찬가지로겠지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우는 아이를 보며, 얼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천천히난하게 커 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타까워하고 기꺼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겪는 기쁨과 어려움, 고통을 모두 아시고 함께 하시며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고 의지할 때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만 남았으나, 믿음이란 앎을 우리는 나쁘게 건넌지도 모르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세상 것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양 의 수 (신혼가정부)



이제 신혼인 저희가 온전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찌든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경험과 맞닿을 통해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했던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각기 30여 년을 다르게 살아오다가 얼마 전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희 역시 너무나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기에 사소한 부분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부부가 됐다고 해서 정신적 사고나 생활의 방법들이 하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사 입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은 어디에서부터 짜는지, 자기 전 씻고 자는지, 쓰레기는 누가 비우고 방 청소는 언제 해야 하는지 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 왔지요.

이러한 서로 다른 것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젠 식사할 때도, 자기 전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는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가운데 많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잠이 많은 편이라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면 피로가 미루어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마찰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듯,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바뀌고 변화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처음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이의 눈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이 곧 서로를 위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경의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신 말씀을 이제 조금 알 듯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따로 살아가는 30년은 다시금 머리를 돌 것입니다.

부모와 믿음의 유산

최 광 (신혼가정부)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한 마디 말로 답변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의 근거는 저의 부모님과 그 이전 세대인 조부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산을 제가 물려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억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 시절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초등학교 이후부터 주일예배에 본격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이후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먹여주는 것만 받아먹게 되지요.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저의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억 속에 저보다는 좀더 이른 신앙생활의 기억을 심어주려는 바람에서 아이와 함께 열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신혼가정부 예배를 통해 바람직한 믿음의 가정을 가꾸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쌍을같이 흘러가는 세월과 어려운 경쟁사회 속에서 자칫 육신의 안위만을 찾는다면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차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나사렛 사람(눅 18:37)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름은 구약에서 예수를 예언한 이름들이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실제로 불리워진 이름들을 살펴볼 것이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이름 역시 그 이름의 성품과 계획과 사랑을 보여준다.

예수는 베들레헬에서 태어났으나 일반 백성은 그를 갈릴릴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다. 나사렛은 우리가 흔히 '달동네'나 빈민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었다. 어떤 사람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때 그것은 그가 당시의 사회적 명부에 또는 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구약 어디에도 구세주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수는 사람들이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 부르는 것을 정당화 여기었으며 심지어 스스로도 나사렛 사람이라 하셨는가(행 22:8) 아니, 구약성서나 아대메,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두고 왜 나사렛으로 가셨는가?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사 53:3)이다.

결국 가장 낮은 도시인 나사렛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위에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요 19:19)이라고 붙였을 때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 되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많은 이름을 취하셨으나 그것을 하늘에까지 높이셨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얼마나 낮은 곳에 있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천해 보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우리를 찾아 우리를 있는 곳에 오신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멸시를 받고 배척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는 여전히 '나사렛 예수'이시며 그 이름을 위해 민중하고 배척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 빈궁하다면 기뻐하라. 예수는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듯 예수는 작은 나사렛의 이름을 높였지만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는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로 높이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장광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장광하고 화피하지 않는가? 복음이 정당하지 않은 듯하여, 멸시받을 만한 듯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에서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답하라. 멸시받을수록 담대하라. 빈궁할수록 담대하라. 모든 일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꺼이 그의 능욕을 지고 가자. 그가 그리했듯이.

[한국 교회사]

대부흥 운동

1900년대에는 교회의 수직 성장만이 아니라 신앙운동과 영적 부흥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특히 1900년초에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대단히 성했다. 이 당시 사경회가 열리면 먼 지방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양식과 의복을 준비하여 참가했다. 이 사경회는 당시 교회에 큰 활력을 주었다. 당시로는 성경교육기관이나 훈련된 지도자가 매우 적었으므로 사경회는 한국교회의 신앙운동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1903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의 대부흥운동과 1909년의 100만 인 구령운동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미 1903년부터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1903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하던 중 전교사들의 반성이 일어났다. 이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기도회는 그 후 교파를 망라하여 전교사들과 한국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1904년에도 원산에서 회개와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1906년 평양전교 선교사들이 이 기도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인 하디(Dr. R. A. Hardie)를 초청하여 집회를 시작했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죄의 고백과 회개는 1907년 대부흥을 가져왔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는 10일간 계속되었고, 매 집회 때마다 남자만 1,500명이나 참석하였다. 여자들은 교회당 주변에 자리를 만들고 앉아 예배를 드렸다. 길선주 전도사와 방위랑 선교사의 설교는 죄의 통회와 회개를 불러 일으켰고, 그칠 줄 모르는 회개와 자복이 일어났다.

이것이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다. 이 대부흥의 불길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성경연구와 기도·전도·봉사·봉헌의 생활이 강조되었고,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부흥운동으로 강로교회에서만 이 해에 1만6천 명의 새 신자를, 감리교에서는 1만 명의 새 신자를 얻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1907년에는 학습, 세례교인이 9만 명이었으나 1908년에는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15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새벽기도운동은 바로 이 때 생겨난 기도운동의 하나였다.

1907년의 부흥운동은 1909년에 전개된 100만 인 구령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에 대해 백낙준 박사는 '대부흥운동 100만 인 구령운동을 통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던 한국교회가 보다 순수해지고 순화되었으며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이 더욱 연결되어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하였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 동 헌' 성도를 소개합니다

등산과 수영을 즐기는 미혼 청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형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받았습시다. 그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형이 병이 들어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이 다니던 중원 교회로 나왔습시다. 교회에 처음 나오던 날 배가 은혜로웠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군복무 시절에 억지로 애배드리며 피곤함을 느낄 때와는 전혀 달랐습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존재조차 의심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도 얻었습시다. 새가족부에서 말씀 암송대회를 할 때 외운 말씀들이 기억에 남습시다.

한 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다들주일 찬송

423장 나의 믿을 악할 때

에이다 하보산 여사가 1905년에 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찬송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편에서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는 내용이다.

1절: 나의 믿을 악할 때 주 날 붙들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들네

후렴: 나를 붙들네 나를 붙들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들네

2절: 우리 주교 아니면 서지 못하리 나의 사랑 사들 때 주 날 붙들네

3절: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들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들네

4절: 멸망 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들네 미를 따를 것이니 주 날 붙들네

찬송 전체에 큰 감동과 감사가 깊이 배어 있다. 그러므로 결코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붙잡고 감신 주님처럼 너무 크지 않게 웅장함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단의 '사랑하는 나의 주' 부분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부르는 것이 좋다.

(전승위원회)

+ 양호실

3교구 박상복 성도(여63세) 난소암이 온 몸에 전이되었고 배에 복수가 차오른 상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할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교구 김광순 집사(여78세) 지난 20일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어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4교구 이해선 집사(여45세)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입니다. 체력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7교구 최영희 집사(여53세) 계단에서 굴러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었고 목뼈가 어긋나 신경이 눌린 상태입니다. 치료 과정을 잘 견딜 것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호 집사(남59세) 직장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양성훈 권

죄인의 집

1교구(정현민 목사, 윤인숙 전도사)



여리고 성은 죄악의 도성이었다. 삭개오의 집은 그 중에서도 죄인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의 도성,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자 변화가 일어났다. 은혜의 도성, 은혜의 집이 되었다.

바리새는 사람들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 자신들이 진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삭개오 역시 소외된 자였으며 진리를 갈망했다. 그는 예수의 소식을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뿔나무에 올라갔다.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도 세리장인데...' 하며 거드름을 피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신의 체면을 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어찌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가? 예수를 갈망하라. 진실로 예수를 갈망한다면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버려야 한다. 혹, '그대도 내가 구역장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그대도 뵈네...' 라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을 포기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았다. 이는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신들은 의인이므로 죄인과는 상종 못할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었지만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죄인의 집을 은혜의 집으로 만드셨다.

구역원들의 집에 심방을 갈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 집이 누추하여 심방이나 초대를 부끄러워하거나 꺼리는 구역원이 있는가? 삭개오의 집이 은혜의 집이 된 것은 부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집의 크기는 상관없고 주지시켜야 한다.

죄인의 집이 은혜의 집이 되기에는 회개라는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예수께 의탁했으며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가뭇유다는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심판했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행동을 끝내 버렸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 집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진리를 갈망하며 예수를 알고 있다. 이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역을 변화시키는 일이 남았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석혜림 (유치부 교사)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나무·꽃·사람 등을 그림 색칠하는 때에는 어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뭇잎은 초록색,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뭇잎은 황토색일 수도 있고, 하늘은 노랗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가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리며 교회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의 교육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성경학교를 여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2월 25, 26일에 유치부에서부터 겨울성경학교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의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이 계속 머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처럼 일기 제보고 저리 제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온 몸으로 깨달으려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많이 세상에 물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아이들, 간혹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으면 "선생님, 오늘은 기도해 주지 않아요?"라며 먼저 말해주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늘나라의 천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한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이런 생각들이 때마다 거리에서도, 차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나라의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소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러움 없이 묻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주님만을 위해 성장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살람,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해요

류명희 (유아부 공직자 어머니)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한 일뿐인데 그때 그 순간에는 왜 그리 답답하고 조바심이 생겨 잠도 못 이루었는지... 첫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 그저 감사했지요.

그런데 5년 뒤 태어난 둘째 아이는 생후 6개월 쇼아천식이라는 병에 걸려서 설 해 없이 기침을 하고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수시로 응급실을 드나들다가 집에 산소 호흡기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나빠졌죠. 이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왜 우리 아이만 이런 병에 걸렸는지 화도 나고 너무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병원과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저 아이를 어떻게 맡기라는 거야?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우리 아이만 이런 병에 걸려 고생을 할까 하며 낙심하다가도, 병원에 다녀오면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우리 아이의 병은 병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이른 아이가 너무 많고 희귀병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인가 남편이 약속이 있어 늦는 날이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 아이가 무이유없이 울기 시작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울어서 병원에 가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 통화할 수 없었어요. 달래다 못해 큰아들에게 찬송가를 가져오라고 했죠. 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붙여안고 아는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30곡 정도 불렀을까.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송을 2번쯤 불렀을 때쯤에 안긴 아이가 조용하고 편하게 잠이 들어있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뒤로 날이 갈수록 호전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어요. "하나님, 뒤늦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맡기고 나니 이렇게 편안하네..."

지금은 우리 아이는 유아부에서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가족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가족의 체면 찬송이 되었어요. 지금은 딸이 병은 탓에 두 아이 모두 눈을 감고도 3월까지 외워서 부른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성령의 생

스가랴(Zechar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2)

스가랴서를 읽으실 때에는 그 표현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과거에서 끌어온 풍부한 용어와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비전으로 학계의 예언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예언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집중되었으며, '학계' 선지자가 메시아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과 상징'이라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는 다산의 표현과 흡사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고 하지만, 뜻하신 것을 다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1:6).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상태와 부패한 지도자들 부정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이 열국에서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종결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두 번 이상 선지자적인 표현과 역할로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모와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3:1, 8-9; 6:12-13; 9:9; 10:3-4; 11:4-13; 12:10; 13:1, 7; 14:3-9). 그래서 주님의 왕 되심을 예언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왕에 대한 비전까지 나타내었고(9:9과 10:12-15를 대조), 메시아가 온 삼상에 팔리는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11:12-13과 마 27:1-9를 대조).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를 읽으시면서 그가 예언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에 대한 예언과 성취(3:8과 10:45절), 가정에 대한 예언과 성취(3:8; 6:12과 마 1:78), 제사장과 왕에 대한 예언과 성취(6:13과 히 6:20-7:1), 겸손한 왕에 대한 예언과 성취(9:9-10:3과 마 21:4-5, 10:12-14:16), 배반에 대한 예언과 성취(11:12-13과 마 27:9), 손을 찌름에 대한 예언과 성취(12:10과 요 19:37), 첫 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13:1과 게 1:5), 인종과 신성에 대한 예언과 성취(13:7; 6:12과 요 8:40; 1:1), 제척에 맞은 심에 대한 예언과 성취(13:7-9와 마 26:31, 마 14:27), 재림과 즉위에 대한 예언과 성취(요 10:16, 게 11:5; 21:27) 등, 놀랄 만큼 정확한 그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나타낼 영광의 구조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동하 목사(순곡교회 지도)

믿음의 학교에서

언약(covenant)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낸 구약사 역사와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에 앞으로로 그 관계를 존속시킬 방법임을 주지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출 19:4). "내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19:5-6).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율법)을 지킴으로써 세상 열방 중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너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다(19:8).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립 이전의 백성의 죄는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체결 후에는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출 6:7; 8:1).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권위나 심판주의 위임이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심계명은 속박의 금지조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성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형일 기자)

